



의료인문테마스쿨 Newsletter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ontents

1. 판데믹시대! 의사는? 1
2. 시각장애인 음악가들 3
(“신은 내게 눈 대신 목소리를 줬죠”)
3. 건강한 의대생활 5
4. 내러티브 의학-인간을 이야기하다 7
5. Matt Damon 구하기 9
6. 커피 이즈 더 뉴 블랙 11
7. 의사와 실물경제 이야기 15
8. Just zone out 17
(부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9. 와인과 의사의 삶 19
10. 의료인문 2D하기 23
11. 나와 함께 잘 살아가기 25
12. 인생극장-사람토론 27

판데믹 시대! 의사는?

담당 교수: 권현희, 오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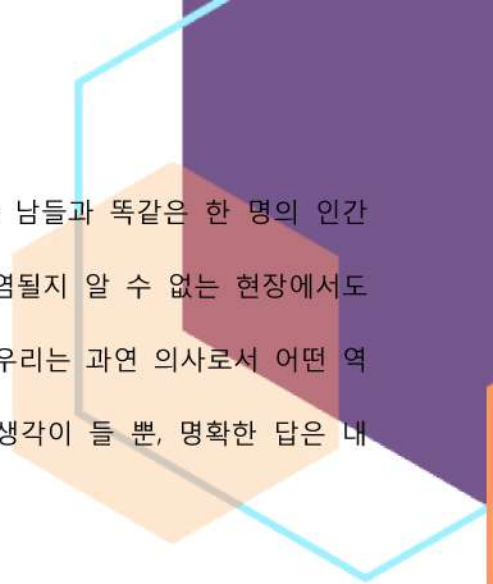
참여 학생: 박세혁, 오유영, 이강현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병한 뒤 본격적으로 전세계로 퍼져나간 코로나 19는 지금까지도 퇴치되지 않은 채, 싸움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런 코로나 판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의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총 4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수업은 2월부터 있었던 대구 코로나 사태에 대해 경북대학교 김종연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진료 시 갖춰야 하는 복장, 즉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해보았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인류의 역사에서 있었던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을 읽고 전염병에 당면한 인간군상을 현재의 우리 모습과 비교해보았다. 보건소나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할 계획도 있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 가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첫 번째 수업이다. 작년 2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들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이나 드라이브 스루 검사, 입원대기자 전화 건강 상담 등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전국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할 만큼 현장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라 안타까웠다.



점점 판데믹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전염병을 맞이한 의사는 남들과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이다. 전문가이지만 신은 아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 또는 동료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현장에서도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질병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 명확한 답은 내리지 못할 것 같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 (신은 내게 눈 대신 목소리를 줬죠)

담당 교수: 김숙영, 이동훈

참여 학생: 김기훈, 유준호, 장성빈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력은 없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발달된 청력이 있다. 이는 이들의 예민한 청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시킨 시각장애인 음악가들과 그들의 예술 세계를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인 음악가

를 미리 조사해가면, 안과 질환에 대해 교수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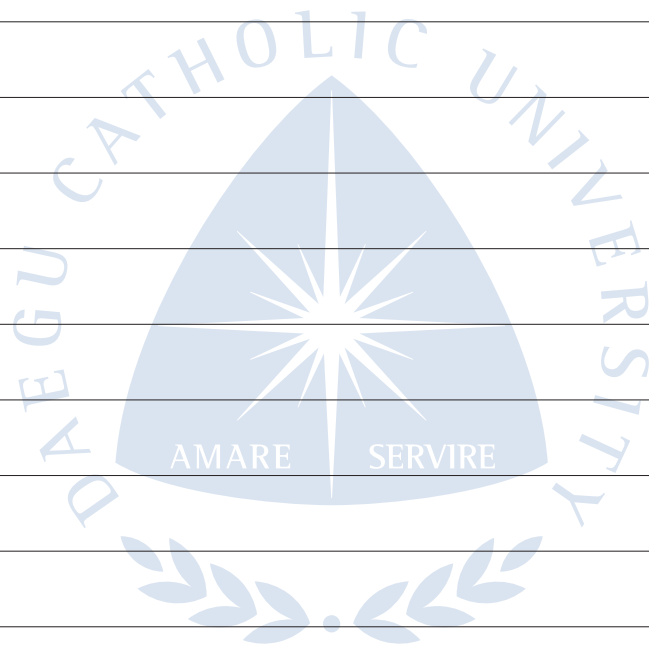
첫 시간은 스티비 원더였다. “Isn't she lovely”, “I just to called to say I love you”등,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준비했다. 교수님께서 음악 뿐만 아니라, 스티비 원더의 어린 시절 일화들도 소개해 주셨다.



시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한빛예술단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빛예술단은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으로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각종 커버 곡들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해야 더욱 아름답다는 김숙영 교수님의 이론에 따라 언제나 귀와 입이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

MEMO



건강한 의대생활

담당 교수: 곽상규, 김인환

참여 학생: 최형렬, 배준우, 백승원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공부는 빼놓을 수 없다. 좋은 인품을 갖는 의사가 되기 이전에 환자들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의대생은 필수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매우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한다. 의학과 2학년 즈음이 되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과 유급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우리의 숨통을 매 순간 조여온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칫 잘못하면 공부에 대하여 아예 체념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거나 주시, 밤낮을 바꿔가며 하는 가상화폐, 매 순간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튜브의 감상 등의 건강하지 않은 취미에 몰두하게 만든다. 또한,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걸리고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가 만연한 학교생활이 더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의대생활을 의대생들인 우리들이 현재 지내고 있다.

건강한 의대생활은 이러한 힘든 의과대학 생활에서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였던 앞산전망대는 건강한 의대생활 활동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불과 며칠 전 심장순환기학 시험을 치룬 뒤라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인 우리들은 전망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알 수 없는 개방감에 휩싸였다. 학기 중에는 해가 뜨면 수업이 시작하고 해가 지는 시간대가 되어서야 하교를 하여 둘러볼 수 없었던 대구의 모습을 발아래에 두고 보니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매너리즘이 일순간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

건강한 의대생활이라는 의료인문테마스쿨을 진행하면서 기억나는 또 다른 활동은 볼링이었다. 영화를 본다면 노래를 듣는 등의 평범한 여가생활도 건강하게 의대생활을 보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회가 아니라면 동기들, 그리고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언제 볼링을 해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점수 내기를 하였고 결과는 극적인 승리를 아쉽게 쟁취하지 못하는 드라마틱한 볼링 한 판을 즐길 수 있었다. 볼링이 더욱 재미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동기들 모두 볼링을 잘 치지 못해서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경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작성하지 못한 많은 활동을 통해 모두가 즐거웠고, 힘겨운 의대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화요일이 매주 기다려지는 이유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볼링이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는 계기가 되어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기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생겼다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유익한 활동이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강의해주시는 교수님들을 사적으로 뵙고 같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교수님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공부만 하며 떨어진 우리들의 저질 체력을 어떠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게 의대생활을 해 나갈지 체험하고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내러티브 의학-인간을 이야기 하다

담당 교수: 송정은

참여 학생: 김동진, 김세현, 신은민

내러티브 의학이란 인간관계로 엮인 이야기를 임상 현장, 의학 연구와 교육에서 활용하는 의학적 접근법을 말한다. 문학 작품, 영화 혹은 실제 의사와 환자의 경험을 토론했거나 에세이를 써보며 환자를 질병의 숙주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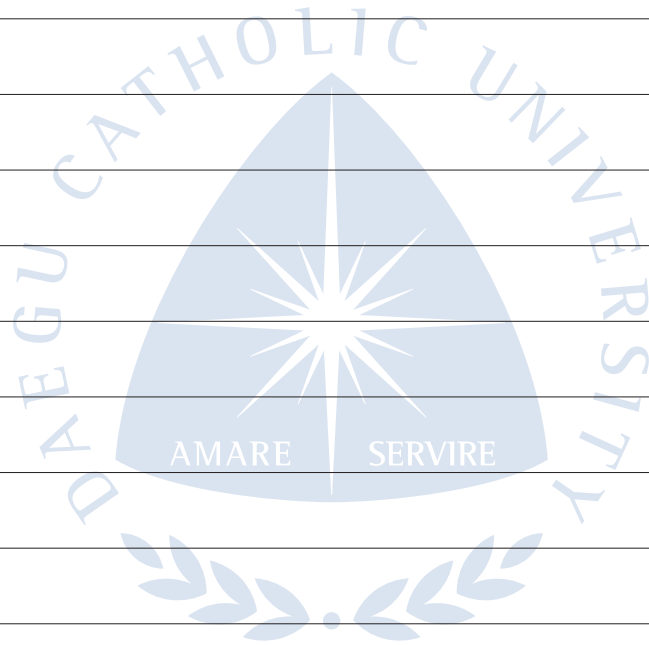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의 활동은 영화 감상을 통해 내러티브 의학을 접해보고, 등장인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수님께서 선정하신 '컨테이션', '원더', 그리고 '패치 아담스' 세 가지 영화를 세 번에 걸쳐 각각 감상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영화를 본 후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영화를 모두 감상한 후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를 하나 선정하여 에세이를 쓰는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을 되짚어보며 의학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의과대학을 다니면 여러 가지 의학 과목에 대해 병인론적, 임상적 관점에서 배울 수 있지만 막상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기회는 흔하지 않았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은 맛있는 식사와 교수님과의 편안하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과 더불어 환자뿐만 아니라 친구 및 동료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한 의대생활 가운데 잠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이었으며, 최근에 개원하신 외과 전문의 박준모 원장님을 만나 의과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개원 비용, 유지비, 수입, 동업에 관한 어려운 점 등 개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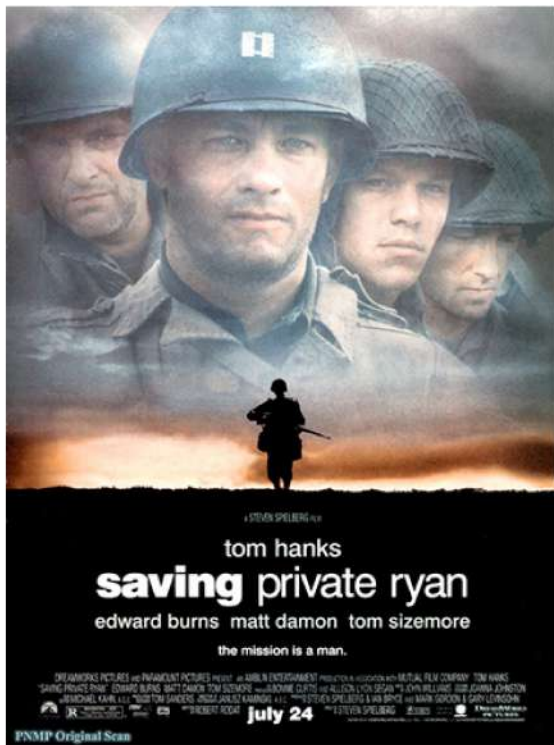


MATT DAMON 구하기

담당 교수: 김홍태

참여 학생: 곽도영, 김정연, 조현정

영화 속 이야기지만 미국 정부는 Matt Damon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과 여러 사람을 희생하였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수의 사람을 위해 사회와 다수의 사람의 희생이 불가피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와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토론한다.



가장 먼저, 2월 23일에 김홍태 교수님과 조원 모두가 모여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조원들 중 영화 두 편 모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교수님께서 영화의 기본 배경과 전체적인 목표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맷 데이먼 구하기라는 주제에 알맞게 실제로 그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무려 9천억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월 2일에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았다. 맷 데이먼이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으로 나오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원 8명이 파견되어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내용이다. 대위는 다수를 희생해서 소수를 구하는 결정을 왜 내렸는지,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3월 30일에는 두번째 영화인 마션을 보기 시작해, 4월 13일에 영화를 마저 보았다. 이 영화에서는 맷 데이먼이 화성 탐사 우주비행사이자 식물학자로 등장하는데 화성의 낙오되는 상황을 그린 영화이다. 실제로 내가 동료였다면, 혹은 NASA 관계자였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전 영화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교해 어떤 점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하였다.

5월 4일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각자 상황을 설정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치료제에 얼마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소방관들의 직업 정신은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명존중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의료 환경에서 이와 비슷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의 책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회 전반의 의료자원 분배를 고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COFFEE IS THE NEW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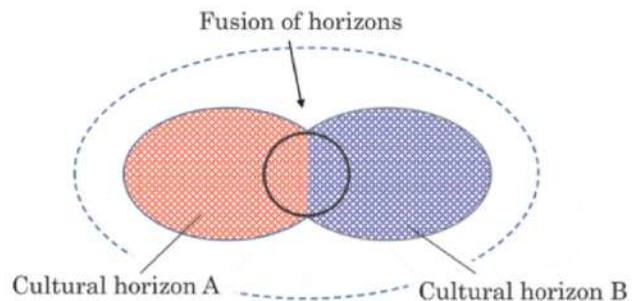
담당 교수: 노운석, 정진용

참여 학생: 김광현, 김일광, 이명섭



“Coffee is the new black.” 이것은 “커피가 새로운 유행이다” 라는 말로 현대 사회에서 커피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운석 교수님과 첫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철학은 대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며,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이란 각자의 주관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미 해석된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며 각자의 선입견을 통해 만들어진 지평(horizon A)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평은 새로운 지평, 곧 다른 사람의 지평(horizon B)과 만남으로써 끊임없이 확장해 나간다. 나의 지평과 타인의 지평이 만나 두 지평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두 지평이 합쳐지는 ‘지평 융합(fusion of horizons)’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나의 지평을 넘어서서 새롭게 확장된 지평에 들어가 세계를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과대학에 진학해 공부만 하느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질 틈이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커피라는 새로운 지평을 만나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환자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커피라는 새로운 지평을 만나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고자 한다.



<커피의 종류>

1. 에스프레소(Espresso)

많은 종류의 커피 중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는 곱게 갈아 압축한 후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통과시켜 뽑아낸 이탈리아 정통 커피이다. 에스프레소는 높은 압력으로 짧은 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 양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아메리카노(Americano)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커피로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 연하게 먹는 커피이다. 에스프레소의 향을 그대로 즐기면서 맛은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커피라고 하여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불리게 되었다.

3. 카페라떼(Café Latte)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우유를 곁들인 커피이다. 1/3의 에스프레소에 나머지를 우유로 넣는 것으로 우유가 5mm 정도 맨 위에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카푸치노(Cappuccino)

카푸치노는 이탈리아 프란체스코회의 카푸친 수도회 수도사들이 머리를 감추기 위해 쓴 모자와 닮았다고 하여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에스프레소에 우유 1/3 컵을 끓기 직전까지 데워 얇은 거품을 만들고, 준비한 에스프레소의 가운데에 우유를 넣어 만든다. 부드럽고 진한 맛이 특징이다.

5. 카페모카(Café Mocha)

에스프레소에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가루를 넣어 인위적으로 초콜릿 맛을 강조한 커피이다. 초콜릿소스 1정도에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1:3 정도의 비율로 섞고 휘핑크림을 올려 만든다. 달달한 만큼 칼로리가 높다.



<커피의 역사>

커피는 7세기 이전부터 에티오피아의 고지대에서 자생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염소 목동이었던 칼디가 우연히 염소들이 먹던 열매를 발견했고 열매를 마을에 가져오는데, 피곤함을 덜어주는 커피의 효능을 마을의 종교 수행자들을 돕기 위해 쓰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커피 도입은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공식 문헌상으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러시아 공사가 커피를 권했다고 나타나 있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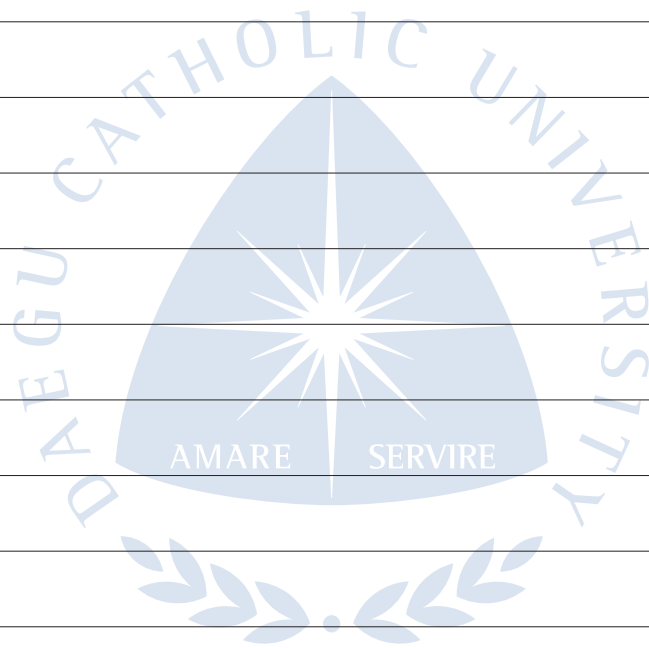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우리는 물의 온도, 입자 크기, 로스팅 정도, 추출 시간을 각각 변경해 보며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먹어보았고 기계를 통해 수치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만들어 봤던 커피를 생각하며 가장 이상적인 커피를 만들어보았다. 또한 커피의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커피테스트' 종이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커피를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커피 취향을 알아보았다.

The image shows a detailed coffee cupping form from the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It includes a header with the SCAA logo, a 'Quality scale' legend, and a main table for recording scores across various attributes like Fragrance/Aroma, Flavor, Acidity, Sweetness, Body, Balance, Clean Cup, and Overall. There are also sections for 'Defects', 'Taints', and a 'Final Score' box.

Sample #		Moist Level of sampl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Total Score
			Fragrance/Aroma	Flavor	Acidity	Sweetness	Body	Clean Cup	Overall						
			Dry	Aftertaste	Intensity	Intensity	Balance	Uniformity	Defects (subtract)	Taints=2	# cups	Intensity			
			Qualities	Score	High	High	Score	Score	Fault=4		X	=			
			Break	Score	Low	Low	Score	Score							
Notes:													Final Score		

커피테스트

MEMO



의사와 식물경제 이야기

담당 교수: 박기혁

참여 학생: 이상엽, 임형준, 정제원

2021/03/02 브이외과의원 방문



최근에 개원하신 외과 전문의 박준모 원장님을 만나 의과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개원비용, 유지비, 수입, 동업에 관한 어려운 점 등 개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2021/03/23 대구시의사회 방문

최근 5년 대구에 근무중인 개원의, 봉직의, 대학교수의 현황 및 분포와, 과별 전문의 수, 지역구별 전문의 수, 개원 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및 주의점, 개원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자료, 대구 인구밀도와 의사분포를 참고해서 어느 장소에 개원하면 좋은지, 어느 곳은 안 좋은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2021/05/04 광재혁신경과의원 방문



최근에 개원하신 신경과 전문의 광재혁 원장님을 만나 의과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개원비용, 유지비, 수입, 개원에 대한 전망, 과에 대한 전망 등

개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주식토론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77> 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2 주에 한번씩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주식과 같은 경제공부를 같이 하였으며, 의논 결과 한 종목을 정해 모의투자를 하는 일도 경험하였다.

Just Zone out

(부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담당 교수: 설기호, 김준원

참여 학생: 서수경, 유한나, 정래현

멍 때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상태이다. 멍 때리기,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뇌에 순기능을 한다. 모든 것이 과잉인 시대, 모든 과잉은 항상 문제를 야기한다. '집중'마저 과잉인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불안해하며, 어떤 무언가를 쉴 새 없이 하려고 한다. "집중의 과잉은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 역시 과유불급을 피할 수 없다.



본 의료인문테마스쿨 "Just Zone out"에서는 DMN의 활성화에 대하여 의과학적인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인문사회적 관점으로 멍 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멍 때리는 시간을 통해서 뇌에 휴식을 주고, 향상시키며, 의학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과대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는 전공 수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더 이상 의과대학생의 소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주도학습보다는 교수의 주입식 학습이 익숙해지며 어느덧 창의적인 사고의 성장은 머나먼 꿈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하루하루 바쁜 나날 속에서 학생들은 뇌와 몸을 혹사시킨다. 잠시 주어진 쉬는 시간에도 술을 먹거나 핸드폰이나 게임을 하며 뇌에 진정한 회복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일상에 창의력과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아이디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벗어나는, 돈도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한 방법은 '멍 때리기'이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일상에 창의력과 활력을 공급해준다면 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대폭 상승시켜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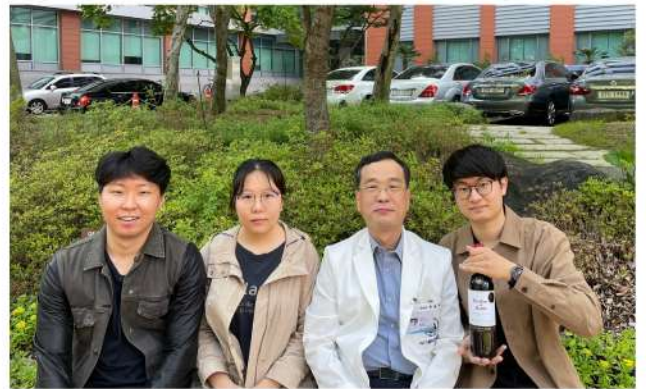
와인과 의사의 삶

담당 교수: 최윤석

참여 학생: 김지현, 박건우, 한기환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레 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남긴 명언이다. 이처럼 와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료이며, 또한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무드메이커이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와인과 의사의 삶>에서는 이러한 와인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이며 내게 맞는 와인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2월 23일,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우리는 앞산 이탈리아음식점 'Gook Su'를 방문하였다. 와인은 본디 요리와 함께해야 맛있는 법. 그곳에서 우리는 식사를 하는 틈틈이 교재 '와인은 어렵지 않아'를 바탕으로 와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하였다. 그 중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은 와인을 꼭 와인글라스로 마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였다. 와인글라스 특유의 둥근 볼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만이 아닌 와인의 향을 글라스 안에 오래 붙잡아두어 향을 좀 더 진하게 맡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며, 길쭉하게 뺀 다리(stem)는 잔을 들었을 때 체온에 의해 와인이 데워지는 불상사를 막아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와인잔 하나에도 와인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에 감탄하며, 우리는 식사로 나온 크림 파스타와 T-본 스테이크와 함께 스페인산, 호주산 와인을 각각 음미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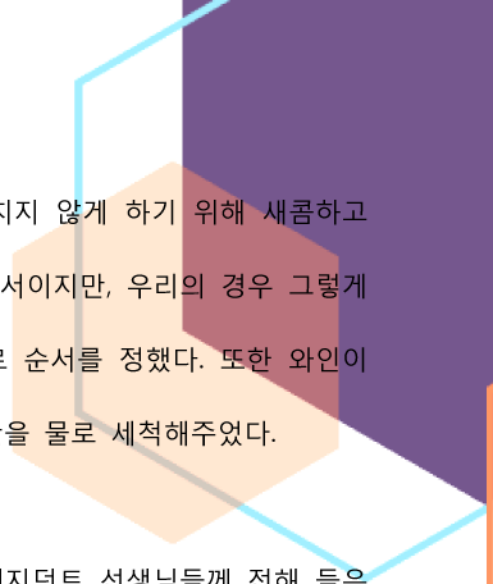
2 주차 수업은 와인 쇼핑이었다. 장소는 범어동의 와인 전문 개인샵 '와인스토리'. 3만원대의 가벼운 가격선에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와인을 직접 찾아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사실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와인 라벨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와인의 이름이다. 이를테면 이름에 포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알싸하고 강한 탄닌감과 블랙베리향이 강하게 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용량과 원산지명, 알코올 도수 등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종종 해당 와인에 사용된 포도의 수확년도(빈티지)가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하기 전 미리 와인의 맛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가인 매장 사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기로 했다. 레드, 로제, 화이트, 내추럴 와인 등 여러 와인들의 평가와 선호도, 맛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들은 후 심사숙고하여 총 10 병의 와인을 구매하였다.



와인을 구매하였으니 이젠 마실 일만 남았다. 다음 주차에 찾아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다. 메뉴는 존스버거와 닭고기였다. 솔직히 햄버거와 와인이 얼마나 어울릴까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다. 좋은 와인에는 어떤 음식이든 어울린다는 걸까. 어쨌거나 의외로 나쁘지 않은 조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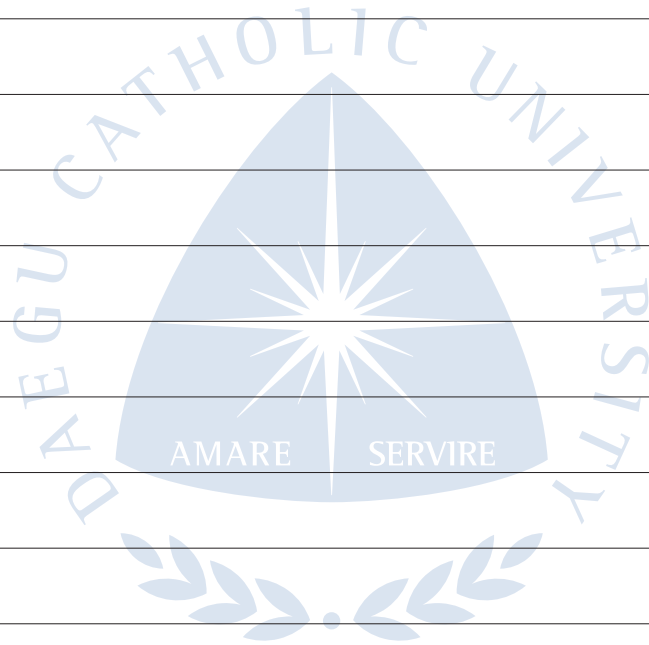
와인을 마실 땐 보통 뒤에 마시는 와인이 바로 앞에 마신 와인의 풍미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 새콤하고 가벼운 와인부터 시작해 점점 바디감이 강한 와인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각자 한 명씩 번갈아가며 자신이 선정한 와인을 따르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했다. 또한 와인이 서로 섞여 맛을 해치지 않도록 화이트 와인에서 레드 와인으로 오갈 때마다 잔을 물로 세척해주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주제에 걸맞게 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레지던트 선생님들께 전해 들은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생생한 병원 현장의 이야기가 더욱 기억에 남았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일과와 고된 업무, 그리고 병동에서 근무를 하며 받았던 상처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진지한 고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의대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되새기게 해주었다. 그렇게 진지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안주 삼아 진행된 소소한 와인 시음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남은 와인은 동기들과 함께 나눠 마셨다. 과자와 젤리, 꿀을 뿌린 치즈, 부드러운 식빵, 베이컨과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 등 여러가지 주전부리들을 와인과 같이 먹어보며 어떤 음식이 어느 와인과 가장 잘 어울렸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갖가지 종류의 와인이 갖는 각각의 독특한 맛의 차이를 느껴보았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와인과 의사의 삶>은 제목처럼 단지 와인 뿐만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의사로서의 삶 자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분히 가라앉고 숙성되는 와인처럼, 아직은 철없고 부족한 우리들도 나이 들수록 차분히 가라앉고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뉴스레터를 마무리해 본다.

MEMO



의료인문 2D 하기

담당 교수: 이용직

참여 학생: 김보현, 이산호, 조민지



이용직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신 '의료인문 2D 하기' 조는 매 수업마다 영화를 한편씩 시청한 후 각각 감상평을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영화들은 '게임 체인저',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 비포 유' 등 영화 속 의사, 환자, 의료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주제를 담고 있다.

보통, 영화를 보고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일이 잘 없는데, 이 의료인문 활동을 통해 한 영화당 약 1,000-2,000 자 정도의 에세이를 쓰면서 영화에 담긴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된다.

① 게임 체인저

- 특정 집단 이익 vs 환자들의 알 권리

② 나, 다니엘 블레이크

- 국가 의료와 복지 체계의 불합리성

③ 8월의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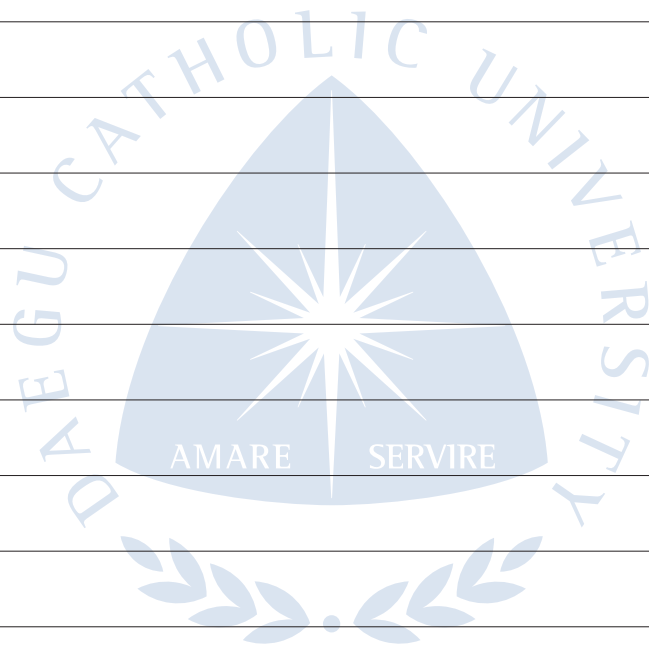
- 시한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

④ 미 비포 유

-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조력 자살 vs 생명 유지의 중요성



MEMO



나와 함께 잘 살아가기

담당 교수: 이화정, 박정아, 조희경

참여 학생: 김미례, 김윤지, 노주언



우리 조의 주제는 “나 알아보기”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또 입학한 후에도 방대한 공부량에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는 이화정 교수님, 박정아 교수님, 조희경 교수님과 함께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학업에

서 벗어나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현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주제는 이화정 교수님과 함께한 ‘밥’이었다. 조원 모두 본가를 떠나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해 끼니를 챙기기가 쉽지 않아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고민이었다. 각자 혼자 살아도 영양소를 챙겨가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본인의 식습관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밥의 중요성에 대한 영화, 수필을 보면서 밥이 지니는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두 번째로 이화정 교수님과 함께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ZOOM을 통하여 전인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명상 특강을 들었다. 명상의 주제는 ‘마음빼기 명상’이었다. 마음빼기 명상이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을 낮추는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도록 해주는 명상법이다. 마음빼기 명상을 직접 해보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박정아 교수님과는 인생그래프 그리기, MBTI 알아보기 활동을 해보았다.

인생그래프 그리기를 하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들,

좋았던 순간들, 학창시절의 모습 등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고 그것들

을 교수님과 동기들과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또 MBTI

검사를 해보고 각자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각자가 가진 성격 특성을 얘기해보고 자신의 평소 성격과 MBTI

검사 결과가 얼마나 맞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조의 테마가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기' 인만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 조원들 모두 본가를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밥을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

처럼 잘 챙겨 먹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서 조희경 교수님과 함께 요리수업 체험을 하였다. 토마토 미트볼 스파게티, 티라미수, 방울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었다. 서투른 솜씨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만드는 것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들 제대로 요리

를 직접 해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재밌었고 완성된 요리는 생각이상으로 너무 맛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인생극장-사람토론

담당 교수: 김지락

참여 학생: 김민규, 나승민, 배주형, 서규완



혹시 TV프로그램 중 사망토론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사망토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개그코너이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런 토론을 해보자는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영화나 연극,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를 설정하고 찬성과 반대를 정한 다음 토론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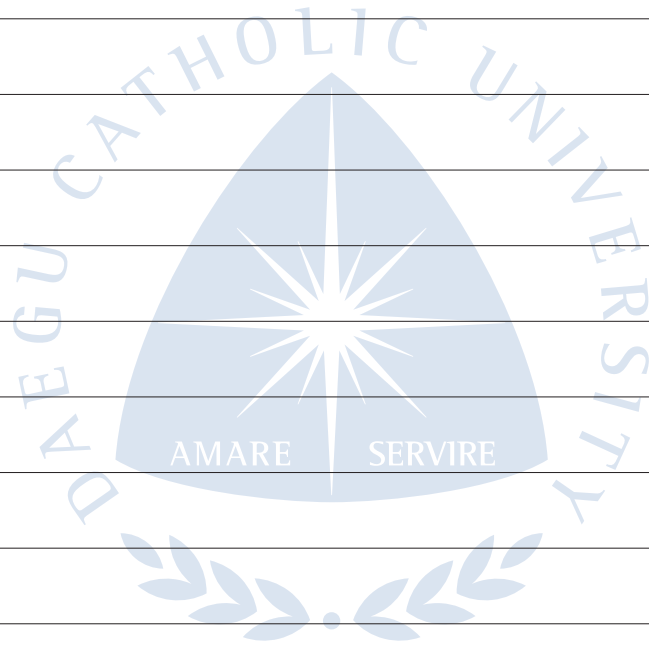
하였다. 우리 조는 특별한 룰이 있는데 만약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견이 한쪽으로 몰리면 교수님이 임의로 한명을 다른 쪽으로 배정해서 사전준비 없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조의 메리트이다.

이번 학기에는 사람이 교수님 포함 5명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애매하여 주로 영화를 보고 진행했으며 5월 28일에 야구경기를 볼 예정이다. 우리가 본 영화는 1917과 기억의 밤이다. 이때 토론한 주제 몇가지를 소개하겠다.



- 추락한 비행기에서 적군이 있다면 구해줘야 되나?
- 전우가 죽은 상황에서 나혼자라도 임무를 계속 해야되나?
- 유석이 진석에게 최면을 걸 때 자신이 형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좋았을까?
- 의사가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를 죽이게 했는데 진석이 다른 가족을 죽였다고 뭐라해도 되나?

MEMO



MEMO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